



미 증시, FOMC 의사록, 소매판매 결과 소화하며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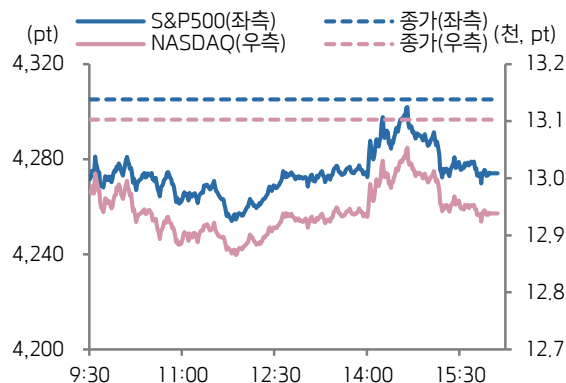
17 일(수) 미국 증시는 양호했던 7 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일부 안도감에도, 7 월 소매판매 부진, 최근 급등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출현함에 따라 나스닥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며 하락 마감(다우 -0.5%, S&P500 -0.72%, 나스닥 -1.25%, 러셀 2000 -1.64%).

이날 발표된 7 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경계심리와 물가 안정 의지를 언급. 그러나 '정책 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의존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문구도 삽입되며 과도한 긴축 우려는 제한되는 모습.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 년물 금리는 의사록 발표 후 3.35%까지 상승했다가 3.28%대로 하향 안정.

미국 7 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0%(예상치 0.1%, 전월치 0.8%) 로 변화가 없었지만, 자동차 및 가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7%(예상치 0.4%, 전월치 0.7%)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 자동차 및 부품 구매가 전월대비 -1.6% 하락을 기록하며 둔화된 영향이 컸지만, 그외의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 침체 우려는 제한적. 미국 6 월 기업재고는 전월대비 1.4%(예상치 1.4%, 전월치 1.6%) 증가를 기록하며 양호하게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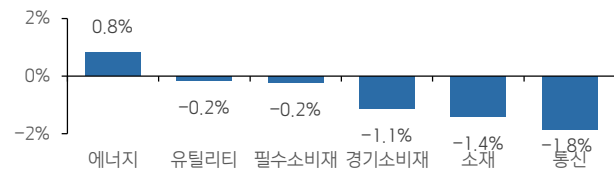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8%) 업종 제외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0.2%), 필수소비재(-0.2%)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통신(-1.8%), 소재(-1.4%), 경기소비재(-1.1%)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전일 월마트와 홈디포의 호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필수소비재 업종은 이날 운송비,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2 분기 실적을 발표한 타깃(-2.7%), 로우스(-0.56%) 영향으로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하락을 기록하며 엔비디아(-2.88%), 마이크론(-3.51%), AMD(-1.93%) 등 반도체 업종 매물 출회.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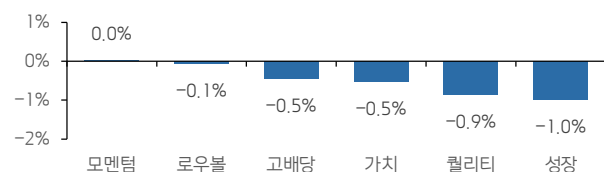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74.04	-0.72%	USD/KRW	1,310.35	+0.16%
NASDAQ	12,938.12	-1.25%	달러 지수	106.66	+0.15%
다우	33,980.32	-0.5%	EUR/USD	1.02	-0.03%
VIX	19.90	+1.07%	USD/CNH	6.79	+0.01%
러셀 2000	1,987.31	-1.64%	USD/JPY	135.11	+0.04%
필라. 반도체	2,970.12	-2.4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915.48	-1.94%	국고채 3년	3.085	+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80	+3bp
Eurostoxx50	3,756.06	-1.29%	미국 국채 2년	3.285	+2.7bp
MSCI 전세계 지수	655.07	-0.66%	미국 국채 10년	2.897	+9.3bp
MSCI DM 지수	2,844.42	+0.0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4.22	-0.08%	WTI	88.11	+1.83%
MSCI 한국 ETF	60.67	-1.53%	금	1776.7	-0.7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우려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던 FOMC 의사록 결과가 국내 위험선호심리에 미치는 영향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로 인한 국내 대형 반도체주의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3. 최근 수급 쏠림이 강했던 특정 테마 업종간 순환매 발생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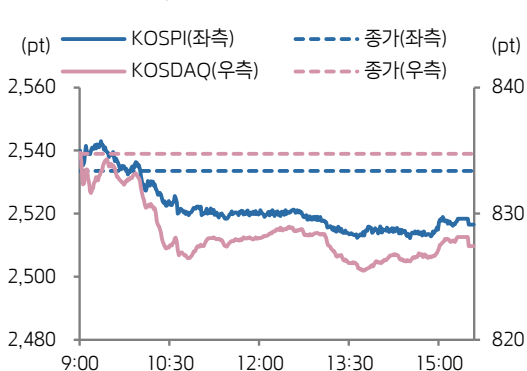
7 월 FOMC 의사록에서는 1) 긴축 강도는 경기 전망에 달려있으며, 2) 향후 회의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고, 3)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대체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매파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던 것으로 보임. 또 “대중이 연준의 의지에 의심을 갖기 시작할 시에는 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 연준이 직면한 위험”이라고 언급한 점은 상당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대응을 시장 참여자들이 감내해야 함을 시사.

그러면서도 금번 의사록에서 “누적된 긴축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특정 시점에서는 인상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연준 역시 2 회 연속 자이언트 스탱(75bp) 인상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금번 의사록은 8 월 10 일 발표된 7 월 소비자물가(8.5%YoY, 6 월 9.1%)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논의들이며 연준 또한 데이터 후행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가 높으면서도, 공격적 긴축에 대한 경기 하방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단서가 시장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일단 의사록 공개 이후 CME Fed watch 상 9 월 FOMC 에서의 75bp 인상 확률(41.0%→35.5%)은 하락했으며, 50bp 인상 확률(59.0%→64.5%)은 상승하면서 빅스텝 인상 쪽으로 시장 전망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상황. 물론 9 월 FOMC 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 8 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과 8 월 소비자물가 이벤트를 치러야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인상 확률을 수시로 뒤바뀔 것으로 예상. 다만, a) 예상보다 낮았던 7 월 소비자 물가 및 유가 하락세 지속, b) 7 월 소매판매 부진(0.0%MoM, 예상+0.1%), c) 3 분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GDP Now 상 16 일 1.8%→17 일 1.6%) 등의 조합을 고려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9 월 FOMC 에서 50bp 인상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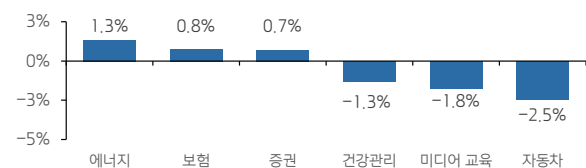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이 같은 7 월 FOMC 의사록 결과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5%) 포함 미국 증시 조정에 영향을 받아 약세 흐름을 보일 전망. 또 2 분기 실적 시즌 종료에 따라 실적 모멘텀이 부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120 일선 및 20 주선 상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도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지수 상단(혹은 반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종 및 사이즈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또 최근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특정 유행 테마 관점에서도 단기 밸류 부담 등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도 경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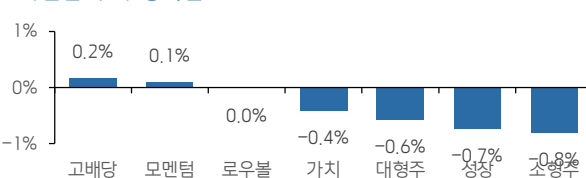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